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용 서 하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 해집니다.

어느 샌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가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니 좌편향이라는 단어로 매도되어가는 듯합니다. 통일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손실을 이야기하며 점점 더 통일이라는 단어는 세상 물정과 정세를 모르는 이들의 이야기라고 치부되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는 어느 교수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본 듯합니다. 얼핏 기억나기로는 나라의 발전은 인구의 수와 영토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 인구는 한국의 영토크기에 비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하고 이제는 내리막길이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일이 있다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섬나라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지리적 우위에 있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동서남북 중에 북쪽으로는 배도 비행기도 차도 갈 수가 없어 섬나

라 일본보다 더 나은 지리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유럽까지도 땅을 딛고 갈 수가 있는 은총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을에서도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회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화해를 시도하려 용기 내어 만나지만 ‘그때 왜 그랬냐?’ 라는 말이 시작되면 다시금 가슴에 불이 일고 찢던 손이 주먹을 쥐게 되어 등을 돌리게 될 때가 많은 듯합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살기위해 화해를 하고 싶지만 화해의 악수를 하려니 겁이 납니다. 상대방이 손을 펴주면 나도 주먹을 피겠더라는 비겁한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더 큰 마음, 큰 사람이 손을 먼저 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사는 이들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만 평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큰마음, 큰 사람으로서 먼저 손을 펴서 악수를 청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면, 풍요로움에서 오는 큰마음으로 주먹 쥐지 않고 손을 펴주면 어떨까 합니다.

울 수 있는 것도 은총입니다. 아픈데도 울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볼 때 용서의 마음도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성심은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울고 있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는, 웃고 있는 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같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에 사는 민족들이 잘하게 되면 그때서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 회개하고 난 후에 하느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용서는 영원히 잇는 것이다.’ 라고 돈보스코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용서의 용기를 발휘해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할 것입니다.

농은수련원 차광철 베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에서 일치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서로 용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일치와 화해를 위해 헌신 할 것을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흠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흠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신명기 30장 1절-5절

안 내 : 모세는 백성에게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께서서는 흠어졌던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가 형제,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제2독서 : 에페소서 4장 29절-5장 2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묵 상 : 우리는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도록 불리움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나누고 베풀도록 창조 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할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도록 하느님이 지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8장 19절-22절

강 론 : ‘용서하기’(1-2쪽)

예물준비성가 :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성가 : 500번 ‘평화의 하느님’

영성체 후 묵상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넘어서는 하느님 자비의 표현입니다.
화해는 말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행위이고
행위 이전에 결심을 일으키는 마음가짐입니다.
흩어졌던 가족, 이웃, 민족이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려면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용서를 이웃에게 전하고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6번 ‘찬미노래 부르며’

※ 공소사목 성금

박무학님	100,000원	상괴공소	200,000원
------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76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사제성화의 날 기념
‘昭林 김정자 화백 기증전’

 - 일시 : 6월 24일(금) ~ 7월 7일(금)
 - 관람시간 : 10:00 - 17: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전 교구민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성과 생명 그리고 사랑과 책임’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 일시 : 6월 25일(주일) 14:00 - 18: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6월 26일(월) 20:30
 - 장소 : 예천성당

- 2017년 전례봉사자 교육

 - 일시 : 7월 1일(토) 10:30 - 16:0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각 본당 전례봉사자 전체
 - 참가비 : 1인 10,000원

- 2017년 평협 하계연수 및 임시총회

 - 일시 : 7월 8일(토) 16:00 - 9일(주일)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사목회장단, 제단체장, 평협 상임위원
 - 회비 : 1인 35,000원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 신청 : 6월 29일(목)까지 사목국

- 문경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7월 9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문경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7월 6일(목)까지

- 교구청사 봉헌 1주년 기념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찬양음악회

 - 일시 : 7월 9일(주일) 16:30 - 18:0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제22회 농민주일 기념 교구 농민축제

 - 일시 : 7월 16일(주일) 10:00
 - 장소 : 풍양농촌선교분당

- 건강한 가족 만들기(Family wellness)

 - 일시 : 7월 1, 8, 15일(토) 14:00 - 17:00
 - 대상 :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장소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원 관구 4층(송현동)
 - 참가비 : 1인 5만원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회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신청 : 6월 30일(금)까지
사목국 054-858-3114~5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신청 : 7월 14일(금)까지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문의 : 010-3777-4688, 조대윤 야고보 신부
kmsvocation@daum.net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설명회

 - 일시 : 7월 1일(토) 14:00
 - 대상 : 본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
 - 문의 : 054)338-0530

-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 일시 : 7월 22일(토) - 23일(주일) 1박2일
 - 대상 : Quality School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 접수 : 학교 홈페이지(7월 12일부터 선착순)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이사 65,17)

남북 분단 72년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며 유럽연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남북 대결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국 이래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구속되었으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은 제각각 여러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나, 남과 북은 분단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64년 정전체제 속에 냉전논리가 남과 북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냉전논리는 우리 신앙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냉전논리를 신앙에 우선하여 북한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들,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이들을 매도하거나 심지어 성직자들에게도 ‘종북’ 딱지를 스스럼없이 붙이기도 합니다. 긴 냉전의 시간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병들게 만들었고, 우리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

다. 불완전한 정전체제 속에서 한반도는 늘 긴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하여, 특히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한반도에 평화는 정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전쟁종식을 선포하고, 남과 북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때, 경제적 동반성장과 더불어 통일의 그날도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종교와 민간차원에서 남과 북이 활발한 만남을 통해서로가 한 형제임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불리움 받은(마태오 5.9 참조) 교우 여러분! 평화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내와 용기를 갖고 기도 운동에 동참해주시요. 매일 저녁 9시,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모경을 함께 바칩시다. 2016년 춘계 주교회의에서는 각 본당에 ‘민족화해분과’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평화운동을 각 본당 단위에서부터 적극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냉전논리에 젖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예제 36.26 참조)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교회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원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발현 당시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묵주기도를 봉헌하라” 하신 성모님 말씀은 분단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모시고 평화가 강물처럼 넘실거리는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7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주교



아내가 수상하다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어느 때 부턴가 우리는 점점 엇박자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데 아내의 취침시각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문제는 빨리 잠이 드는 만큼 일어나는 시각도 그만큼 빨라지니 새벽녘에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보면 뜬금없이 주방에 환히 불이 켜있다. 새벽 3시경이면 삼라만상이 잠들어있는 시각, 아내는 찬장안의 그릇을 죄다 꺼내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뿐만이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발장 앞에 재활용박스가 보란 듯이 떡 하니 나와 있다. 어느 때는 옷가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어느 때는 신발들이 어느 때는 아내가 평소애 들고 다니는 가방까지 함부로 박스 안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고,

“쓸 만한데 버리는 거야? 버리기엔 좀 아깝지 않아?”

내 땀에는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조심스럽게 나의 생각을 조금 발설했을 뿐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속사포 같은 아내의 반론이 나를 강타한다.

“당신은 이런 게 구질구질하지도 않아? 좀 버려야 새것도 쓸 것 아냐! 비싼 것도 아닌데...”

감정이 개입 된 듯 느껴지는 아내의 예상치 않은 발언에 오히려 당황해진 것은 내 쪽이다. 이제껏 별말 없이 잘 살아 온 아내가 최근 들어 사사건건 왜 날을 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보다 독서를 많이 해 상황에 맞는 세련되고 어려운 단어를 잘 구사하는 아내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뉴스를 보다 뭔가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하면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수십 년을 가까이 곁에서 지켜 봐 왔건만 최근에 보이는 아내의 낯선 행보에 나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내에게는 소중하지 않았던 것일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일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걸어온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왔으면 그걸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크게 속 썩이는 아이들도 없었고 남편인 나도 나름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아내에게는 지금 와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 걸까?

미디어마다 열심히 떠들어대는 빈둥지증후군? 정체성 찾기? 사는 게 바빠 갱년기도 모르고 지났다며 큰 소리 치더니 갱년기를 이제야 맞이하는 건가? 그렇다면 남편인 나는 할 말이 없는 줄 아는지, 아이들은 커 갈수록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아내의 사회적인 인간관계망은 어찌 그리 넓고 다양한지 오히려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이나 상실감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아프게 함을, 깊을수록 소리를 내지 않은 강물처럼 남자는 오직 견딜 뿐이지 절대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아내들은 왜 모를까?

아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 싶다. 당신과 내가 만들어가는 생애 중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만 남아 있다고 이런 쓸데없는 감정싸움에 시간을 허비하기엔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당신이 나를 잘 만났다는 생각보다 내가 당신을 잘 만나서 행복했노라고, 처음 만날 때야 서로 뜻이 맞아서 만났겠지만 이젠 서로 맞추어가며 살 연륜이 아니냐고, 분리수거 하듯,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만 차곡차곡 골라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쓴 글)